



WFB 동서양 소통·생태보존... '더 나은 미래' 결의

개회식, 세계불교도축제 문열다

30여국 불교지도자 22년만에 한국서 다시 만나

6월 12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진행된 개회식은 WFB한국대회 조직위원장 진옥 스님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해 LED전광판으로 구성된 대웅전이 마련되며 송광사·화엄사 스님들의 '산사의 새벽' 무대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또 WFB주제가 합창, 삼귀의, 전국비구니화상 명우 스님의 고불문 낭독, 주제영상 상영, 환영사 및 축사 등이 이어졌다.

개회식에서 WFB한국대회 명예대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은 개회사에서 "WFB한국대회가 세계정신문화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일용무어의 자비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자타불이의 보살행으로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축사했다.

관 와나메티 세계불교도우의회 본부 회장은 "세계박람회와 열리고 있는 여수에서 이번 불교도우의회를 열게 돼 특별하게 생각한다"며 "세계는 인권과 우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경남·전남 등 10개 지역 1000여명의 불교연합합창단과 55명의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화음을 만들어내 참석한 이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개회식을 마치고 거북선 공원에서는 40여 개국 세계 어린이들과 다문화사회를 상징하는 등과 장엄물을 점등하는 축하 행사도 개최됐다.

이에 앞서 첫날인 11일에는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환경포럼이 열렸다. 도법 스님과 태국 사마나 포퓰 전태도 스님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환경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생태환경 보존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 토의했다. 노덕현 기자



개회식에서 WFB한국대회 명예대회장 자승 스님이 축사를 하고 있다.

세계불교도우의회 WFB 한국대회가 6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계 30여 개국 불교지도자들과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15일까지 그 화려한 일정을 이어갔다. 1990년 서울대회 이후 22년만에 열린 WFB 한국대회의 모습을 전한다. 여수·노덕현 기자

세계불교화두 다뤄진 포럼

여성출가·정교분리 문제 개선 등 발표

개회식을 마친 전세계 30여 개국 불교지도자들은 13일 디오션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불교사상을 통한 동서양의 소통'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교분리, 여성문제, 환경보존 등 세계불교계의 화두가 다뤄졌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미국 샌디에고 대 종교와신학 부교수로 사카디타 불교여성국제협회를 설립하기도 하는 등 세계여성불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카르마 렉세소 스님은 '현대사회와 불교' 발표에서 불교의 당면 문제로 여성차별을 지적했다. 세계불교계에서 여성이 승려로 인정받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 등 극소수다.

렉세소 스님은 "불교는 이론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그 적용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차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렉세소 스님은 "모든 여성들에게 평등한 수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성차별에 매달리는 태도는 불교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앙드레 빅토리아 미국 안티옥 대학 일본연구학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론적으로 전쟁을 후원한 스즈키 다이세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교분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 폴 데이비드 님릭 교수가 '미국 역사 및 문화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포럼에서는 여성출가 등 현대불교계 문제점이 논의됐다.

고승수계법회 청정지계 다짐

무더운 날씨에도 일반 불자 3만명 동참

13일 세계고승수계법회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자 3만여명이 모여 그 열기를 더해갔다.

WFB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를 맞아 여수 현장에서 한국과 세계 각국의 원로스님들이 3만 불자들에게 계를 내렸다.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 모인 3만여 명의 불자들은 한국의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을 비롯해 폼와치라야 스님 등 태국, 프랑스 등 전세계 고승들을 3사7중으로 모시고 불자들은 참회와 정진을 다짐했다.

수계법회 전계대화상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 갈마아시아에 조계종총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교수아시아에 원로의원 도문 스님이 모셔졌다.

전 프랑스불교 협회장인 탐팔라라 담마라타나 스님, 태국 프라 폼와치라야 스님, 방글라데시 불교협회장 수다난다 마하테로 스님, 대만불교협회장 명광 스님, 티베트 불교 지도자 캄볼린포체, 몽골 다시조림사 주지 최집자브 담바자브 스님, 호주불교협회 이사 텃폭텐 스님도 3사 7중으로 참석했다.

육법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수계법사 등단, 참회진언, 오색 실 관정, 수계법 전담, 석가모니불 정근이 진행됐다. 고산 스님의 법문에 이어 참석 대중들은 외국전계사신 태국왕 특사 프라 폼와치라야 스님의 선창에 따라 빨리어로 오계를 합송해 장엄을 더했다. 이어 수계사 손목에 오색실을 묶고 합창 후 참회진언을 염송하는 것으로 수계의식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수계 법회에는 3만명의 불자들이 모여 재가오계를 지킬 것을 발원했다.

문화행사 및 볼거리 다채로워

콘서트 등 불교전통과 현대 음악·무용 접합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 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기간 동안 마련된 각 프로그램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은 인드라를 구현했다.

6월 13일 여수 디오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공연 '소리 수행 범패 콘서트(Concerto)'이 펼쳐졌다. 공연은 20명의 스님들이 찬불가와 오케스트라로 새롭게 편곡된 음악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범패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에는 나비춤, 범고춤 등 불교전통춤과 어린이 무용단의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흥국체육관에서는 전북도립극원 관현악단의 특별기획초청 공연 '천년의 보물 판대장경' 음악회가 열렸다.

6월 14~15일 흥국체육관에서는 한국 뮤지컬계의 최고 제작진과 배우들이 대거 참여한 창작 뮤지컬 '카르마의 노래'가 첫선을 보였다. 웅장한 음악과 특수 그래픽 영상이 결합해 화려한 무대연출을 선보인 이번 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도 6월 12~15일 디오션 호텔에서는 불교영화의 현실과 전망을 짚어보는 제1회 불교영화포럼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 '아시아 불교영화의 현실과 전망' > 불법 전파를 위한 수레로서의 영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009년 대만의 허 차오린 감독이 제작한 '아제 아제 바라아제'가 개막작으로 선정돼 상영됐으며, '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무무관' 등 한·중·일 불교영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이은정 기자



전국 10개 지역 불자합창단은 한 목소리로 부처님을 예경·찬탄했다.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년
신제품
경전학습기

염불(念佛), 염승(念誦) 모음

▶ **염승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사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발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필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승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49재편, 시식·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중국어·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넷센스, 현대국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